

신안군, 전국 첫 어선 임대 사업 '눈길'

귀어청년 등 어업인 대상 저렴한 임대료에 빌려줘 10t 규모 '천사1호' 등 총 2척 17억원 구입 지원

신안군이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여건 상 하지 못하고 있던 청년 어부들에게 어선 임대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귀어한 지 6년 된 김순용(48·비금도)씨는 군으로부터 어선 한 척을 임대받았다. 동네 동생들과 한 팀을 이뤄 신안군의 '청년소득 임대 어선' 사업을 신청했는데 최종 선정된 것이다.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청년소득 임대 어선' 사업은 어업에 필요한 어선을 신안군이 사서 이를 필요로 하는 어업인에게 배값의 0.5%(연간)의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어업인들이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면 소유권도 완전 넘겨줄 계획이다.

의 어선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첫 임대 어선으로 근해어선 24t 1척과 연안 어선 약 10t 규모 어선 1척 등 총 2척을 군비 17억원을 들여 구입해 모두 임대했다. 사업의 모든 과정은 지난 7월 5일 제정된 '신안군 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김순용씨가 대표로 있는 비금도 팀이 임대받은 '천사 1호'는 10t 규모로 주로 조기, 갈치, 병어 등을 잡는다. 24t인 '천사 2호'는 먼바다에서 조업할 흑산도 팀(대표 이승호)이 임대어업팀으로 선정됐다. 천사 2호는 주로 우럭과 장어, 흥어 조업을 한다. 김순용씨는 "바다에 물고기는 널려있는데 배가 작아서 조업을 못하고 외지 어선들이 와서 조업하니 신안 어부들은 눈앞에서 물고기를 보고도 소득을 못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면서 "비록 임대지만 자기 배



김순용씨가 대표로 있는 비금도 팀이 임대받은 '천사 1호'. <신안군 제공>

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여서 동생들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조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귀어한 청년 어부들이 먼저 정착한 어업인들이 수익 원이 넘는 어선을 쉽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임대 어선'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안군은 청년소득 임대 어선인 천사 1호가 '천사 100호'가 탄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함평에 '평화의 소녀상' 제막 도내 15번째...함평축협 평화공원에

함평 평화의 소녀상이 함평축협 평화공원에 세워졌다. 함평 평화의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창훈 김영주)는 지난 16일 함평축협 평화공원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공동추진위원장을 비롯해 나운수 함평군수 권한대행, 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 류미진 함평경찰서장, 박영숙 함평교육지원청장 등 내빈과 지역 농·축산단체 대표 등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제막식은 국민의례, 경과보고, 제막,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헌화 이후에는 위안부 희생 할머니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담아 노란풍선 300개를 날리고 함평중학교 함빛동아리 순진환 군과 이윤희 양이 각각 소녀상에 모자와 목도리를 둘러 의미를 더했다. 앞서 지난 8월 함평군과 지역축산단체

등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위안부 피해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지역축산단체 대표 8명을 발기인으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5차례 걸친 위원회의를 통해 설치 장소와 작품형태, 표지석 제작 등을 논의했다. 특히 소녀상 건립 취지에 공감한 지역 농협이 지점별 농협창구를 활용한 성금모금활동에 나서고 함평지역 주민들도 좋은 뜻에 흔쾌히 동참하면서 추진위 구성 약 4개월 만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다. 한편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에 127개, 해외에 10개 등 총 137개가 있으며 함평 평화의 소녀상은 전남 지역에서 15번째로 건립됐다. <함평=황은희 기자 hwang@

무안군, 양파·단호박 수출 17억여원 실적

무안군은 11월 말 현재 지역에서 생산된 양파와 단호박 등 8개 품목 2727t을 해외에 수출해 17억90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농산물 수출량 404t(3억 3500만원)과 비교해 보면 2323t 증가한 것으로, 연말까지 3000t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 품목으로는 양파 2143t, 배추 213t, 양배추 209t, 버섯 80t, 단호박 23t, 멜론 10t, 김 5t, 양파즙 4t 등 채소류에서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 수출시장은 동남아시아가 2600t으로 전체물량의 95%를 차지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 127t을 수출했다. 특히 양파의 판매량은 최근 양파가격 폭락에 따른 산지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무안군과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힘을 합친 결과다. 전남서남부채소농협(576t)과 평화영농조합(1447t) 등은 동남아시아로 양파를 수출해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와 판로개척에 앞장섰다. <사진> 이같은 성과는 무안군이 올해 초부터



양파의 과잉생산을 우려해 노력한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군은 해외소비 촉진을 위해 양파수출 물류비 10억3000만원을 긴급 확보해 농

협과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에 지원했다. <무안=임동원 기자 idh@

신안군,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정책' 재조명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민주주의 정책'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주에서 열린 '농정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신안군 자라도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자라도 사례는 신안군이 2018년 10월 5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해 실행하

고 있는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사업이다. 주민들은 조례에 따라 '자라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약 70MW 규모의 자라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기반을 닦았다. 주민들이 만든 에너지 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소 법인에 자기자본 30% 이상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발생하는 이윤을 공유하게 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영광군, 올해를 빛낸 '10대 우수시책' 선정

영광군이 올해를 빛낸 '10대 우수시책'을 선정해 발표했다. 영광군은 지난 2일부터 열흘 간 주민과 공직자, 군정평가·자문단 등 9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우수시책을 선정했다. 올해 영평군을 빛낸 최고의 시책에는 투자경제과의 지역화폐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유통'이 차지했다. 지난 1월부터 발행·유통을 시작한 영광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1800곳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41억원을 판매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카드형 상품권을 전남 지역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군민안전보험 ▲치매안심센터 운영 ▲결혼·임신·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천원버스) ▲영광 불갑산상사와 축제 개최 ▲우산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영광 e-모빌리티 에스포 개보 ▲농기계 셀프이용센터 운영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이 우수시책으로 뽑혔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영광백수중, 자유학기제 운영 유공기관 선정

영광백수중학교(교장 최이규·사진)가 2019년 자유학기제 운영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영광백수중학교는 지식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 창의성·인성·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핵심역량을 키우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주제선택 교육과정과 교과 수업과 연계한 융합교육과정의 운영이 핵심인데 지역 주민의 불평이나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우리 동네 그린 맵 그리기' 프로젝트, 진로 탐색 및 자기주도 진로설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나도 저자되기' 출판 캠프를 운영 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또 친환경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텃밭 가꾸기를 통한 교과융합수업과 경로당 나눔 봉사활동 전개 등 지속발전가능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 건강학교(Eco-School) 운영, 제 주 4·3시간 바로 알기 교과융합 프로젝트형 체험학습 및 자료집 보관, SW코딩교육·드론교육·디자인 씽크교육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진로탐색 체험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활동 결과물을 학교 축제 때 전시하고 활동 결과에 대한 반성회와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70%) 20억5천1백만원**
- 농 지** ▶ 광주 광산구 신창동 77-70 토지 : 2175㎡(657.9평) **감정가 12억6천1백5십만원 최저가 12억6천1백5십만원**
- 대 지** ▶ 광주 북구 중흥동 701-7 토지 : 235㎡(71.1평) **감정가 4억1천1백2십5만원 최저가 4억1천1백2십5만원**
- 주 택** ▶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최저가 (70%) 7억2천2백6십만원**
- 주 택** ▶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1천8백5십만원**
- 아 파트** ▶ 광주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6차 42평 **감정가 6억6천8백만원, 최저가 (70%) 4억6천7백6십만원**
- 아 파트** ▶ 광주 남구 노대동 송화마을휴먼시아6차 41평 **감정가 4억1천1백만원, 최저가 4억1천1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